장흥,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방침' 눈길

6급 승진자 보직·비정규직 원칙 마련

계장 보직 없는 6급 22명 해결 관심

장흥군이 인사 파행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최근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내놓았다. 승진 인사 남발, 근무평정과 다른 무원칙 인사 등 과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공직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7일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6급 승진자 보직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 전입고사, 타시군 및 타기관 인사교류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일선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근속 승진제도'로 승진한 6급(계장급)공무원의 비대화로 보직관리와 전보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달 말 계장(담당)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승진자만도 22명에 달해 이들은 길게는 3년 이상 같은 6급 밑에서 무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군은 다음달 말 결원으로 자리가 빈 읍·면 계장급 자리에 심사 승진과 근속승진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고 최초 임용일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발령한다는 기준을 정해 인사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직과 혼합 복수보직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특수자격증을 가진 통신·전산·지적·보건·의료기술·간호직 등 기술직은 해당 업무관련 직위에만 보직을 맡겨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무자들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준도 포함됐다.

군은 그동안 업무경력자 일방 전출로 인한 업무의 누수를 막기 위해 타시군 및 타 기관 인사교류를 발령일로부터 4년(전남도 3년 제한 원칙)으로 하는 전보 제한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는 단체장의 인사 의지와 철학에 따라 단행된다는 점에서 인사운영 방침이 얼마나 지켜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풍년농사 기원 통수식

농어촌공사 함평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박금수)는 7일 오전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강운저수지에서 지역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시작했다.

올해 저수율이 99%인 1만26t을 확보, 현재 저수량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가뭄이 계속돼도 용수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풍년농사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은 필요한 용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금수 지사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로 농업인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전통혼례 치르는 다문화가족 8일까지 계속되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다문화가족 3쌍이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담양군이 주관하고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담양지사가 신혼여행권과 압력밥솥을 제공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완도 신지 피톤치드 서울보다 28배 높아

전남 해변·섬·숲 자연치유 관광지 부상

완도 신지 일대의 음이온이 서울보다 28배나 많게 나오는 등 전남의 해변과 섬, 숲이 자연치유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7일 "도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변·섬·숲 등 32개소를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으로 지정하고 치유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도림 사업은 음이온과 피톤치드 등이 풍부한 해변·섬·숲에서 각각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 치유관광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여수 만성리 해변을 비롯한 25개소(해변 4·섬 4·숲 17)를 지정했으며, 지난 4월 여수 방죽포 해변 등 7개소(해변 3·섬 3·숲 1)를 추가로 지정했다.

해도림에는 여수(봉황산), 순천(용계산), 나주(금성산), 광양(백운산), 담양(산성산), 곡성(청계산), 구례(천황봉), 고흥(팔영산) 등이 지정됐다. 또 함평(돌머리), 완도(생일도), 신안(임자도) 등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난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최대 28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이온의 경우 완도 신지가 3181개/㎤으로 서울(115개/㎤)보다 28배나 높았고 신안 증도 2620개/㎤, 완도 노화도 2112개/㎤, 축령산 2014개/㎤로 높게 나왔다. 피톤치드는 화순 만연산 927pptv(1조 분의 1을 나타내는 부피단위), 보성 제암산 738pptv, 담양 죽녹원 749pptv, 완도 삼두산 864pptv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올해 181억 원을 투입해 해변(여수·보성·완도·신안), 섬(고흥·완도·신안), 숲(광양·고흥·화순·강진) 등 해도림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전남도 이승옥 관광문화국장은 "자연치유의 땅 해도림을 청정지역 전남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만트럭버스코리아' 장성에 서비스센터 개소

세계적인 상용차 생산업체인 '만(MAN)그룹'의 동아시아 본부인 만트럭버스코리아(대표 틸로 할터)가 7일 장성에 만트럭버스 전용 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사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에 문을 연 장성 서비스센터는 독일 본사의 표준 워크숍 기준에 부합되는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친 최첨단 정비 센터다. 특히 호남고속도로와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남부 물류의 요충지에 위치해 여수 및 목포, 군산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 서비스센터는 판금 및 도장 시설을 포함, 6개의 워크베이를 갖추고 있어 만트럭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일반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날 오전 서비스센터 개소식에 이어 오후에는 540마력 신형 덤프트럭인 'MAN TGS 이피션트라인' 신차 발표회도 가졌다.

만트럭버스코리아 관계자는 "올해는 장성을 포함해 전국에 6개의 서비스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올해도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20명 초대

해남군, 왕복항공료·비자비용 등 지원

해남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다문화가정의 친정부모를 초청한다.

군은 7일 "올해 군비 2000만원을 들여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10세대 20명의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고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에게 친정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해남에 대한 친정부모의 인식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3월 읍·면 추천을 받아 지난달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왕복항공료 전액과 방문부대비용, 비자비용과 초청가족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달 말 입국하는 초청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교육과 지역홍보 등을 통해 시댁 구성원과의 대화법,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해남의 우수관광자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친정부모 초청으로 해남내 다문화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도 친정왕래가 없는 가정을 중심으로 선정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세대 17명의 다문화가정 친정부모를 초청한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신안, 고령자 치매 약제비 지원

각종 복지 혜택 강화

신안군이 고령자들의 건강을 위해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들에 대해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군에 따르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2인 기준 207만7000원)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매달 3만원 한도 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난 6일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 접종사업은 백신 수급량 조정으로 인해 이달과 6월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11월부터 65세 이상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사망률이 높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 검진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들에 대한 홍보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도서지방 특성으로 교통 환경이 열악하고 고령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잊을 수가 있다"며 "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